

영화·콘서트 보러갈까



●영화 '서울역' 17일 개봉 | 감독 연상호 | 목소리 출연 류승룡·심은경·이준 | 93분 | 15세 관람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서 '부산행'의 앞선 이야기를 담은 프리퀄 애니메이션. 의문의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서울역을 배경으로, 재난을 마주한 사람들의 사투를 그리고 있다. '부산행'을 관람한 관객이라면 사진 전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돼지의 왕'(2011)으로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제6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받았고, 2013년 '사이비'로는 세계 최고 권위의 프랑스 앙시 애니메이션 경쟁부문에서 재능을 선보인 연상호 감독이 다시 한 번 자신의 장기를 자랑한다. '부산행'에 깜짝출연한 심은경이 목소리 연기로 힘을 보았다.

●이선희 '더 그레이트 콘서트' 9월2일(오후8시)·3일(오후6시)4일(오후5시) | 서울 세종문화회관 | 150분 | 만7세



‘국민 디바’라는 수식어에 이견이 없는 이선희의 단독 콘서트. 최근 SBS 음악 예능 ‘판타스틱 듀오’에서 일반인 출연자 예진아 씨와 5주 연속 우승한 뒤 명예에 졸업해

가창력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이번 공연에서는 예진아 씨와 듀엣으로 화제가 된 ‘알고 싶어요’를 비롯해 ‘인연’ ‘추억의 적장을 넘기면’ ‘아름다운 강산’ 등을 선사한다. 서울 공연에 이어 전주, 부산, 대전 등 11개 도시에서 ‘2016 더 그레이트 콘서트’를 이어간다. 문의 1544-1555.

●피아X드렉레스토랑 '리얼 라이브' 9월10일(오후6시) |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 180분 | 만7세



록밴드 피아와 드렉레스토랑의 합동공연. 피아는 뉴메탈에서 이모코어, 신사사운드까지 다양한 음악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밴드다. 정준영

이 이끄는 드렉레스토랑은 세련되고 날카로운 사운드, 개성 있는 음악으로 주목받는다. 두 팀이 실 톱 없이 몰아치는 폭발적인 라이브와 컬래베이션 무대로 가슴 뛰는 ‘진짜 라이브’를 선보인다는 각오다. 두 팀이 각 80분씩 공연한다. 문의 02-563-0595.

엄마·아빠 놀러가

●무장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8월19일~21, 충남 보령)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무장포 해변에서 석대도까지 1.5km의 물갈라짐 현상을 테마로 한 축제이다. 음력 보름과 그믐에 열리는 바닷길에 맞춰 열린다. 19일 첫날에는 개막식과 불꽃쇼, 풍등날리기, 햇불어업체험체험 등이 열리며 일요일까지 갯벌 조개잡이 체험, 맨손 물고기잡기 체험, 돌살어업체험 등 어촌 마을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2016 한강 동망' 여름 축제 (~8월21일, 서울 한강공원 일대)

서울 서민들의 피서지인 한강변을 무대로 진행하는 축제이다. '날이로 예술로 다가오는 한강'이란 테마로 7월 중순 오픈해 이번 주말까지 열린다. 신원한강(수상레포츠, 도전), 감동한강(공연,



9월3~4일 자라섬 뮤지컬 페스티벌에 뜨는 뮤지컬 스타들. 홍광호, 김선영, 마이클리, 조정은, 카이, 한지상, 윤공주, 김우형(왼쪽 맨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PL엔터테인먼트

자라섬에 '뮤지컬 별'이 뜬다

우리나라 최초 야외 뮤지컬 페스티벌 9월 3~4일 이틀간 출연자만 총 75명 김선영·조정은·최현주 등 스타 출몰



은 말 그대로 한 밤의 영화관이다. 물론 뮤지컬 영화를 틀어준다. JMF시파티에서는 유명 DJ와 함께 음악을 들으며 가을밤의 파티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뭘 좀 재밌는 거 없나”하고 스테이지를 슬렁슬렁 오가다 보면 한나절이 훌쩍 지나가버릴 것이다.

●올스타 배우 총출동으로 '눈 호강 귀 호강' 예고

고고성을 울리며 첫 선을 보이는 축제인 만큼 참가자들의 명단이 흥천연색이다. 유명 뮤지션들의 콘서트와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을 담당한 김서룡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국내 대표적인 뮤지컬 음악감독인 변희석 감독이 음악을 책임진다.

9월 3일에는 김선영, 조정은, 김우형, 이안 존 버그, 박영수, 전나영, 서경수. 4일에는 홍광호, 마이클리, 최현주, 윤공주, 한지상, 카이, 최민철 등이 무대에 선다. 뮤지컬 헤드워의 다영그리니치 밴드와 천변카바레 밴드 소울트레인도 만날 수 있다. 최현주의

출연이 반갑다. 지난해 안재욱과 결혼하며 잠시 무대를 떠나 있던 최현주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복귀한다.

국내 뮤지컬 토크콘서트의 대명사인 '이야기쇼'도 페스티벌에 합류한다. 12년에 걸쳐 200회나 공연했던 '이야기쇼'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뮤지컬 이야기쇼 이석준과 함께 in 자라섬'이란 이름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이틀간 펼쳐지는 무대에 오르는 출연자는 모두 75명. 이중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만 65명(중복배우는 1명으로 집계)이다. 65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은 있을 수 있어도, 스타배우 65명을 한 무대에 그것도 이틀씩이나 모아놓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배우들이 출연한 작품 수를 합하면 국내 작품이 440개, 해외 작품이 27개라고 한다. 주최사인 PL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 동안 무대에서 노래 또는 연주되는 음악은 90여 곡에 달한다. 한 마디로 뮤지컬의 A부터 Z까지이다.

실내 공연장을 벗어나 별빛이 쏟아지는 야외에서 펼쳐지는 뮤지컬의 색다른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자라섬'을 기억해 둘 일이다. 뮤지컬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뮤지컬의 재미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의 자리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책 읽는 주말

●오늘부터 디제잉 (장규일 저 | 청림Life)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취미생활인 디제잉의 모든 것을 한 권으로 집약한 초보 디제이 가이드북. 디제잉 문화, 장비 고르는 법, QR코드 동영상으로 배우는 기본 테크닉, 선곡 노하우, 무대 매너 등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춘 디제잉의 A to Z를 담았다.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예산별 레슨비와 장비구입비도 별도로 제시했다. 초보자들이 디제잉을 배우고 무대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소개해 실용성을 높였다. 저자 장규일은 '국내 1호 디제이 코디네이터'이다. 평일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퇴근 후에는 클럽에서 디제이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기타, 어려워! 피아노, 평범해? 나만의 특별한 취미를 갖고 싶다면 오늘부터 디제잉을 시작하라!”.

●창의력을 키우는 액티비티100 (질 디드리크·위리엘 두뤼 저·배정은 옮김 | 황금시간)



프랑스식 놀이육아법 100가지를 담은 책이다. 기발하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프랑스 놀이육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프랑스의 음악치료사이자 정신집중요법 전문가인 저자 질 디드리크는 서문에서 “아이들이 실망하는 것, 느끼는 것, 질문하는 것 등 모든 감정들이 창의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로 구성된 100가지 액티비티는 저자가 프랑스에서 아이들에게 실제로 지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놀이들이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없다. 종이, 나뭇잎, 얼음, 물감 등 주변의 흔한 재료들만 있으면 100가지의 독창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불공의 주식투자 불패공식 (불공&박선목 저 | 부키)



세상에서 가장 느긋한 주식투자전문가가 전하는 불패공식이다. 저자는 해외무역과 영화수입, 뮤지컬 제작 등 각종 저자산업을 펼치고 있는 코스크엔터테인먼트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이다. 최근에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 사이트인 불공잡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 불공은 이른바 전업투자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운영하는 불공주식연구소는 2010년 8월 문을 연 이래 현재까지 5년 11개월간 60개 매도종목 평균 수익률 62%(배당수익 포함)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언어의 온도 (이기주 저 | 말글터)

언론인 출신인 저자는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있는 말과 글을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저자는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어의 어원과 유래, 그런 언어가 지닌 차가움과 따뜻함을 글감으로 삼아 하찮아 보이는 것들의 소중함을 예찬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문장과 문장에 호흡을 불어 넣으며 뜨거운 음식을 먹듯 찬찬히 씹다 보면 저자가 말하는 ‘언어의 온도’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양형모 기자



영화, 퍼포먼스), 함께한강(생태체험,캠핑,휴식) 등 3개 테마로 80여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반포, 양화, 이촌, 독서, 잠원 난지 등 11개 한강공원별로 콘셉트를 정해 이벤트가 벌어진다. 여름 캠핑부터 수상스포츠, 서커스, 음악회, 영화제, 거리공연, 자전거, 종이배, 파이어 아트, 전통공연, 나이트마켓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축제 마지막 주인 이번 주말에도 한강수상안전, 카



약 카누, 불꽃점프, 웨이크보드, 여름생태학교, 오리보트 경주, 헌책방 축제 등이 열린다.

●태안 연꽃축제 (~8월31일, 충남 태안 그린리치팜)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200여 품종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하며 여름 무더위를 잊는 자연 축제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꽃 품종과 수생식물, 야생화를 보유한 태안 그린리치팜(구 청산수목

원)을 무대로 진행한다. 연꽃 보호를 위해 하루 입장 인원이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별도 예약은 필요없고 전체를 돌아보는데 대략 2시간 정도 걸린다. 연꽃을 감상하기 좋은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연꽃을 가까이서 감상하도록 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근처에 몽산포, 청포대, 꽃지 등 서해안의 유명 해수욕장들이 있어 주변 나들이에도 좋다.

●에버랜드 썸머 스피클래쉬 (~8월28일, 용인 에버랜드)

에버랜드의 여름 시즌 대표 축제인 썸머 스피클래쉬도 앞으로 2주 후인 28일 막을 내린다. 이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스플래쉬 퍼레이드'.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약 40분간 퍼레이드카는 물론이고 건물 지붕, 바닥, 기둥 등 사방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며 온 몸을 흠뻑 적시고, 피날레에는 객석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모두 광장으로 나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잊지 못할 물총 싸움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의 재미를 느끼려면 비옷과 물총은 필수다. 무더위를 피하고 싶으면 밤



10시까지 오픈하는 에버랜드 야간 개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빛의 미술관', 야간 퍼레이드, 멀티미디어 맵핑쇼, 불꽃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